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2. 26.(화) 총 3매	
담당 부서 국토정보 정책 과	담당 자	• 과장 김형석, 기술서기관 김영욱, 주무관 강윤모 • ☎ (044) 201-3458, 3463, 3462	
보도일시		2017. 12. 27.(수) 10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공간정보 보안규정 완화로 자율차 등 신산업 이끈다

25cm급 항공사진 공개 전국으로 확대·도로지역 3차원 좌표 제공 가능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25cm급 항공사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」을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.
-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,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시설 및 국가 보안시설의 노출과 항공사진 해상도를 제한하는 등 공간정보 제공에 대해 여러 보안대책을 적용 중에 있다.
 - 그러나,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공간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기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데 저해가 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.
 - 이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비추어 일부 과도한 보안 기준의 선별적 완화를 위하여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원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.

□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해상도 25cm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.

- 그동안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 등에서만 해상도 25cm 항공사진의 공개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해상도 50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의 공개가 제한되어 왔다.

-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해상도 25cm급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보다 선명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.

* 항공사진의 해상도는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한 픽셀 안에 담을 수 있는 지상 거리를 말함

《 항공사진 해상도 비교 》



- 아울러 올림픽 등 국제행사 홍보 및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 지역의 항공사진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면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의 제공도 가능토록 하였다.

② 1/1,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인에게 제공시 인적 사항 기록 유지 조항을 삭제하였다.

③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이는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“이번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, 3차원 공간 서비스, 건축설계, 증강현실(AR), 및 가상현실(VR)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,

○ “신산업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간시장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 정보정책과 김영욱 서기관(☎ 044-201-3463)이나 강윤모 주무관(☎ 044-201-346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